

전국RHRD센터 실무자 해외연수

- 유럽의 교육제도 -

1. 영국 - GREEN LANE NURSERY PRIMARY SCHOOL

1) 영국의 초·중등교육제도

영국의 어린이들은 3세나 4세부터 취학 전 교육을 받기 시작한다.(Nursery Education 또는 Pre-school) 초중고교의 사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취학 전 교육기관들도 사립과 공립으로 나뉘지며, 사립유치원의 학비는 1 term(1년 3 term제)당 1000파운드 내외이며, 여기에 점심식사를 포함하거나 오후에 추가로 몇 시간을 더 봐주면 가격은 더 올라간다. 또한 사립유치원 교육의 질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발레, 악기 다루는 법 상당히 광범위한 교육의 기초를 서비스로 제공한다.

영국은 5~16세까지가 의무 교육과정이다. 영국의 어린이들은 만 5세가 되면 초등학교에 입학하도록 되어 있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6년 과정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11세(일부 학교는 12세)가 되는 해에 중학교로 진학하는데 중학교 과정은 16세까지 지속된다. 대부분의 공립학교들은 남녀공학이

며, 사립 초등학교는 사립 중학교 입학에 준비하는 예비 학교(Preparatory School)로 불리기도 한다. 참고로 한국인 학부모가 영국에서 유학 중이거나 상사원, 외교관으로 주재하고 있을 경우에는 자녀들을 학비를 내지 않는 공립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다. 그 외의 외국인(비영주권자 또는 비시민권자)들은 공립학교에 들어갈 수 없다.

(1) 취학전 교육

5세 이전의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점차 확대, 보급되는 추세이다. 대체로 4세가 되면 유치원 교육받기 시작하여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까지 2년간 공립 초등학교에 병설되어 운영되는 유치원(Nursery class 또는 Reception class)에서 무상으로 실시된다.

현재 3~4세 아동의 약 48%가 이러한 유아교육 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대개는 part-time), 그 외의 아동들도 대부분 각 지역 구청의 사회복지과에 운영하는 탁아소(day Nursery) 또는 다소 비형식적인 놀이마당(Play group : 자발적인 단체로서

부모와 함께 가서 하루 몇 시간씩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놀 수 있는 곳으로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동의 상당수가 이 시설을 이용한다.

5세 이하의 어린이에 대한 교육은 의무교육은 아니지만 많은 지방교육청(Local Education Authorities)들이 자격 있는 교사들을 두고 취학 전 교육(pre-school / nursery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일반 개인이나 자원 단체들도 지방교육청과는 별도의 취학 전 그룹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취학 전 교육은 대체로 아동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2) 초등학교 교육

5세가 되면 의무교육이 시작되는데 그 처음 단계인 초등교육은 11세까지(스코틀랜드의 경우 12세까지) 실시된다. 공립 초등교육기관에는 5~7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학교(Infant school)와 7~11세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학교(Junior school)가 있다. 초등학교도 예비학교(Preparatory school)라고 불리는 사립학교가 있다. 거의 대부분의 초등학교는 남, 녀 공학으로 운영되며 학급규모는 25~26명, 교사1인당 학생 수는 22명이다. 영국의 초등학교는 6년 과정이며 11세가 되면 중학교 진학하여 16세까지 공부한다. 학기는 9월이나 10월에 시작하여 다음에 6~7월에 마친다.

공립 초등학교들에서는 5세에서 11세까지의 교육이 이뤄지는데, 스코틀랜드나 잉글랜드의 일부지역에서는 12세까지도 이뤄진다. 초등학교는 보통 유아(infants)와 '초급(junior)' 단계로 나뉜다. 몇몇 지역에서는, 지방교육청이 3단계 구조로 학교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는 초급, 중급, 고급 학교들로 8세, 9세와 12세나 13세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대부분의 초등학교들은 남녀 공학이며, 몇몇 사립학교들은 보통 '예비(preparatory)' 학교로 알려져 있고 7세에서 13세까지의 학생들이 다니며, 사립 중등학교의 입학시험을 준비하게 된다. 공립 학교는 국가재정으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이 거의 없으나, 문제는 교육의 질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것이다. 그래서 여유가 되는 학부모의 경우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는데 학교의 대학입시 성적과 남녀 공학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어느 사립학교로 보낼지를 결정한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유명한 명문학교인 이튼이나 해로우의 경우 매우 비싼 학비를 부담할 재력이 이어야 한다. 옥스퍼드에 소재한 사립초등학교인 드래건 학교(Dragon School)의 경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입학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한다. 교육제도의 신축성이 있어 공립에서 사립, 사립에서 공립으로 옮기기 쉽다.

영국 학생들이 입학하는 중학교들의 대부분은 진학과 취업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종합학교(Comprehensive School)들이며, 일부 우수한 학생들은 대학 진학을 주목표로 하는 그램머 스쿨(Grammar School)에 입학하기도 한다. 영국 학생의 90% 이상이 공립학교(Maintained 또는 State School)에서 교육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가 사립학교(Independent 또는 Private School)에 다니고 있다. 모든 공립학교들은 지역 교육위원회(Local Education Authority: LEA)의 감독 하에 운영되고 있다. 물론 공립학교에서는 무상 교육을 제공한다.

16세가 되어 중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 즉 의무교육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① 중학교만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하거나, ②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자체 내의 고등학교 과정으로 진학하거나 ③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고등학교(Sixth Form College) 또는 전문대학(College of Further Education)에 진학자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2) 대입준비 고등학교 과정 (GCE 'A' Level 과정)

대학 입학에 준비하는 고등학교(Sixth Form College)에 진학한 학생들은 2년간에 걸쳐 국가시험인 GCE A-Level 시험을 집중적으로 준비한 뒤, 이 시험 결과를 토대로 만 18세가 되는 해에 대학으로 진학하게 됩니다. 중학교 과정을 마친 뒤 고등학교가 아닌 전문대학(College of Further

Education)에 진학한 학생들은 전문대학에서 GCSE나 GCE A-Level 시험을 준비하거나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 전문대학들에는 미술 및 디자인 전문대학, 기술 및 경영 전문대학 등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대부분의 전문대학들은 중학교 과정인 GCSE 과정 및 대입준비과정인 GCE 'A' Level 과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중학교만을 졸업한 학생들도 전문대학에서 GCE 'A' Level 시험을 준비할 수 있다. 단 전문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나이가 만 16세 이상이어야 한다.

영국 학생들은 자기집 근처의 공립학교(The State or Maintained School)들에서 중등교육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취업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Second Modern School과 우수한 학생들만을 선별적으로 입학시켜 집중적으로 대학진학을 준비하는 Grammar School, 양자가 혼합된 형태의 학교인 Comprehensive School 등이 있다. 그러나 부모가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으며, 실력이 우수한 학생들은 사립학교(Independent 또는 Private School)로 진학을 하기도 한다. 이들의 비율은 대략 10% 미만이지만 획일화되어 있는 공립학교들과는 달리 다양한 형태의 학교들 중 하나에 진학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진다. 사립학교들에서는 외국 학생들의 입학에 허용하고 있다.

2. 독일 - Dante-Gymnasium

1) 독일의 교육제도

독일의 학교 제도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는데, 한국, 미국, 일본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단선형 학제와 유럽 여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복선형 학제이다. 독일의 경우 전형적인 복선형 학제를 갖고 있는 나라이다. 독일의 학교 교육의 전통은 유럽의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중세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학교 제도의 기원은

중세의 교회에서 성직자를 양성하기 위해 학교를 세운 데에서 비롯된다. 13세기에 들어와서 사회적으로 학교의 필요성이 급증하여 사립학교가 설립되었고, 15세기에 이르러 사립학교의 수는 점차 증가하여, 독일어를 읽고 쓰는 기초교육을 위한 사립학교도 보급되기 시작했다. 독일 최초의 대학으로는 14세기에 설립된 하이델베르크(1386년), 쾰른(1388년), 에어푸르트(1392년)가 있다.

〈 표 1 〉 독일의 교육 제도

계 속 교 육 (일반적, 직업적, 학문적, 계속교육)					평생교육
현장내 계속교육, 저녁학교, 전문학교			대학, 전문대학		3기교육 (18~23세)
이원화제도 (직업학교와 사업내훈련)			직업전문학교 전문고등학교	김나지움 상급과정	2기교육 2단계 (15~19세)
특수학교	레알슐레	하우프트슐레	김나지움	종합학교	2기교육 1단계 (10~16세)
	오리엔트단계				
특수학교	초등학교				초등교육 (7~10세)
특수유치원	유치원				기초교육 (3~6세)

현재 독일은 교육에 관한 입법과 행정 권한이 각 주에 부여되어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이루고 있어, 독일의 교육제도는 연방정부의 관장 하에 한가지로 통일된 제도와 운영방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각 주(州) 정부 관장 하에 이루어지는 지방자치 제도의 운영방식을 따른다. 교육행정은 각 주의 주요 권한에 속하며, 각 주는 문화부라 불리는 교육부를 독자적으로 두어 교육제도를

수행한다. 교과과정, 필수과목, 학습수준 등의 통일을 도모하기 위해 16개 주가 참여하는 상설 공동협의기구를 두고 있지만,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는가는 각 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독일은 만 6세-18세까지 12년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하며, 의무교육 기간 동안의 학교 교육은 무료로 실시된다. 교과서와 일부 학습 자료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이 이루어진다.

2) 독일의 중등 교육

독일의 중등 교육 제도는 인문학교 교육, 직업학교 교육, 종합학교 교육 계통으로 나뉘는 3가지의 기본 골격을 갖고 있다.

① 인문학교 교육과정은 인문교육을 담당하며 장차 대학에 진학하여 학문을 연마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된다. ② 직업학교 교육의 과정은 실업교육을 담당하며 취업에 필요한 자격을 획득하여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준비를 한다. ③ 종합학교교육의 과정은 다양한 형태가 있으며 특정계통에 예속됨이 없이 통합적인 과정으로 운영되며 여러 계통의 학교(김나지움,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등) 졸업을 인정받을 수 있다. 중등학교는 5~10학년 과정이며 보통 하우프트슐레(Hauptschule), 레알슐레(Realschule), 김나지움(Gymnasium) 그리고 종합학교(Gesamtschule)로 나누어진다.

(1) 김나지움 Gymnasium

① 교육 과정

5학년부터 13학년까지의 9년 과정이며 독일의 전통적인 인문계 고등학교로 학생들에게 대학진학을 준비시킨다. 5-10학년은 중등 1단계, 11-13학년은 중등 2단계로 구분되며 교육과정은 학교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김나지움은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현대어, 고전어 그리고 수학 및 과학 김나

지움이 그것이다. 독일에서는 대부분의 학부모들은 자기의 자녀가 초등학교(Grundschule)를 마칠 때 교사로부터 학업에 능력과 소질이 있다고 인정을 받으면 김나지움으로 진학하고, 김나지움을 이수한 학생은 독일 모든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는 아비투어(Abitur)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중등학교인 김나지움은 5학년부터 13학년까지 9년간으로 이 기간에 대학수학에 필요한 능력을 배양하게 된다. 초등학교 과정과 합쳐서 13년간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준비과정을 갖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충실한 학교교육의 전통을 잘 이어가고 있는 바덴-뷔르템베르크 주(州)의 김나지움 교육과정의 이수를 통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를 살펴보면 책임성, 자발성, 논리적 사고력, 구조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정보의 수집과 종합력, 문화 이해력, 창조력, 단결심, 공동작업력, 그리고 성취의욕 등의 배양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언어자연과학계열(우리나라의 인문 계열과 자연 계열)의 이수과목을 보면, 종교/윤리, 독일어, 지리, 역사, 사회, 제1외국어, 제2외국어, 수학, 자연현상, 물리, 화학, 생물, 체육, 음악, 미술 등의 과목을 공부하게 된다. 물론 학교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주력 과목이 있다. 인문계열의 경우 외국어과목에 중점을 두어 고전어인 라틴어까지 4~5가지의 언어를 배울 수도

있고, 자연계열의 경우 물리, 화학, 생물과목을 더 추가해서 이수하게 된다. 5학년부터 11학년까지의 총 이수단위가 인문계열의 경우 214단위, 자연계열의 경우 220단위에 이른다. 여기에서의 이수단위는 주당1시간씩 연간 공부하는 양을 말한다.

② 김나지움 상급과정(Oberstufe)

김나지움의 11학년~13학년은 상급과정(Oberstufe)이라 하며, 이중에서도 12학년과 13학년 과정에서는 각 학생별로 자기의 소질과 적성, 그리고 학업능력에 따라 공부할 과목을 조합하고 성적을 받아 이수해야 한다. 주당 4시간 이상을 공부해야 하는 선택과목(Leistungskurs)과 2시간짜리 기본과목(Grundkurs)을 섞어서 이수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여러 교과목을 3개 분야 즉, 언어분야, 자연과학분야, 예능/사회분야 중 적어도 2분야를 망라하여 최소한 3개 과목을, 그리고 3분야 전체에서 5개 과목 이상의 기본과목을 포함시켜서 공부할 교과과정을 편성해야 한다.

③ 졸업 및 졸업 후 진로

김나지움은 대학 공부를 위한 준비 단계이므로 김나지움 졸업시험은 곧 대학 입학자격(Allgemeine Hochschulreife)을 주는 아비투어(Abitur)로 마무리된다. 물론 아비투어 시험에 있어서 시험을 치르는 과목의 선택과 김나지움에서 이수하는 교과목과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듯 각 분야의 과목을 고루 이수하여야 아비투어를 치를 수 있도록 구조화되어 있어서 독일 김나지움의 교육방향은 결국 소위 전인교육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김나지움 상급과정(Oberstufe)의 성적을 아비투어의 내신 성적으로 크게 반영하는 것을 보아도 학교 공부자체를 매우 중요시한다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아비투어 필답고시에 합격하지 못하면 13학년 과정을 다시 다녀야 하는 낙제 제도는 다른 학년의 경우 성적 미달이면 낙제시키는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김나지움에서도 이미 대학(Universitt)에서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고 적당히 졸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2) 레알슐레(Realschule)

① 교육과정

현재의 레알슐레는 주(州)에 따라 그 의미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에서는 레알슐레 제도가 다른 주에 비해 잘 운영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이 활발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이 학교 졸업생들의 직업적 전망이 상당히 높다. 초등학교 졸업생 중 20% 정도가 진학하는 실업학교로서 김나지움과 하우프트슐레 사이에 위치하는 중간 수준으로 5학년부터 10학년까지의 6년제 학교이다. 5~6학년은 관찰 기간으로 하우프트슐레에서와 같은 진로 지도가 이루어진다. 6년의 학과 과정을 거치며, 마

지막에 종합시험을 통해 실업학교 졸업증서(Mittlere Reife)를 딸 수 있다.

② 교육목표

이 학교의 교육 목표는 대학 교육보다는 직업 생활을 일찍 시작하려는 학생들에게 필요한 기본 소양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다. 또한 레알슐레는 앞으로의 전문직 활동을 위해 필요한 여러 재교육과 상급교육을 받을 기회를 모두 제공하고 있다.

③ 졸업 및 졸업 후의 진로

i. 직업학교 :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배우고 기업체에서 실습을 한다.

ii. 직업 전문학교(Berufsfachschule) : 이론과 실습을 동시에 실시한다. (진로 : 심리 치료사, 노인 간호사 등) 양노 조력인(Altenpfleger/in)

iii. 직업 칼리지(in Berufskollegs) : 졸업 시험을 통해 전문대학 입학 자격증(Fachhochschulreife) 획득이 가능하다. (진로: 공상업의 여러 전문 직업)

iv. 아비투어(Abitur) 준비 : 학생들의 관심과 성적에 따라 김나지움(Gymnasium)으로 옮겨 갈 수도 있고, 실업학교 졸업 후에 직업전문 김나지움(Berufliches Gymnasium)으로 진학하여 대학에 입학할 수도 있다.

(3) 하우프슐레 Hauptschule

① 교육 과정

초등학교 졸업생의 약 30% 정도가 진학하며 일반적으로 시각적-구체적 사고와 활동에 적성이 강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로 5학년부터 9학년까지 5년제 학교이다.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지 않는 학교로서, 이론적 추상적 사고를 필요로 하지 않은 유형의 직업을 가질 학생들에게 인격적 기본 소양과 기술적 능력의 배양을 위한 기초를 제공하는 보통교육을 실시한다. 노동(Arbeit), 경제(Wirtschaft), 기술(Technik)의 3부분의 이해를 돕기 위한 기초적인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8학년 때부터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분야에서 1주일에 1일 동안 실제적 경험을 할 수 있으며, 이것을 통해 장래 직업의 구체적 현실을 미리 점검해 볼 수 있다.

② 졸업 및 진로

졸업 시험은 없으며, 이후 직업 전문학교에의 입학이 가능하다. 그러나 독일교육의 특징인 학교유형 사이의 이전 가능성이나 보완교육 등으로 상급학교로의 진학 가능성이 여러 방향으로 열려 있다.

(4) 종합학교 Gesamtschule

1970년부터 독일은 실험적으로 종합학교(5학년부터 10학년을 위한 과정)를 설립

하여, Hauptschule(하우프트슐레), Realschule(레알슐레), Gymnasium(김나지움)으로 나뉘는 전통적 분류 및 학년을 나누는 학제를 과감히 없앴다. 종합학교 제도는 이제껏 분리되어 온 세 가지의 학교 종류를 통합한 것으로, 졸업형태도 세 가지(하우프트슐레 졸업, 레알슐레 졸업, 아비투어)로 나뉜다. 종합학교는 4학년을 마친 후에도 진로선택이 뚜렷하지 못한 학생들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학교 형태로서, 9학년이 시작할 때까지 진로선택에 대한 결정을 미룰 수 있다.

종합 학교는 내재적 종합 학교(Integrierte Gesamtschule) - 학교종류가 하나의 학교복합체 안에 집약되어 있다. 협력적 종합 학교(Kooperative Gesamtschule) - 공간적 통합을 통하여 교사와 학부모 그리고 학교장 사이의 협력 가능성을 제공한다. 두 가지로 구분되며 이를 통하여 최대한의 융통성과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수업은 핵심(Kern)그룹과 과정(Kurs)그룹으로 나뉘어 진행되며, 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의 구분은 완전히 없어진다.

② 교육목표

종합학교의 교육목표는 부모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학교선택을 지양하고, 다양한 사회계층의 아동들이 함께 학습과 체험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경험을 쌓는 전체성을 추

구하는데 있다. 또한 능력에 따른 차별화가 아닌, 학생의 다양한 재능과 기호를 존중하는 가운데 공동수업을 통해 학습과정의 개인화와 단체 안에서의 개별화를 선호한다.

③ 교육과정

종합학교 교육 과정은 진로 탐색 과정(5학년부부터 7학년까지), 진로 선택 과정(8학년), 졸업 과정(9, 10학년)으로 나누어진다. 핵심(Kern)그룹으로 불리는 5학년 과정에서는 추후 졸업과정과 관계없이 모든 학생이 공통수업을 받는다. 6학년부터는 영어 및 수학과목을 난이도에 따라 두 과정(A와 B과정)으로 구분한다. 7학년에 가서 국어, 영어, 수학이 A, B, C과정으로 나누어지고, 학생은 외국어와 실용과목(가사, 기술, 노동론 등) 중 하나를 선택한다.

8학년부부터 진로선택이 가능해져서 자신의 성적, 기호 및 능력에 맞는 선택과목을 학습하고, 9학년에 진급하여 자신이 선택한 진로와 성적을 비교하여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한다. 이때부터 수업계획은 3가지 학교 형태(하우프트슐레, 레알슐레, 김나지움)에 따른다. 개인의 학습능력과 성취도에 따라 대부분의 학생들은 7학년부부터 수학, 영어, 9학년부부터 국어 및 화학/물리 과정을 이수한다. 7학년과 9학년부부터 개인적 선호도에 따라 외국어, 자연과학, 노동론 혹은 예술계 분야에서 선택과목을 택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총괄적인 상담 및 육성계획을 통하

여 개별적인 학교선택이 보장된다. 그 이외에도 장애자를 특수학교로 편성시키지 않고 종합학교에서 정상학급에 재학시킴으로써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수업을 받는 시험모델 등이 시행되어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사회적-감정적 발전과 타인을 배려하는 분위기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일부 종합학교는 종일학교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가정에서 창조적인 여가형성의 기회가 없는 학생들에게 특별활동을 통해 다양한 관심거리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가정형편에 따른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동들에게 보호와 상담 및 문화접촉의 기회를 마련 한다.

3. 시사점

독일의 경우 교육정책은 각 주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으며 2단계로 구성된 교원양성교육으로부터 한국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개선점이나 시사점을 찾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독일의 외국어 교사양성체계의 구조와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추론하면 다음과 같다.

- 독일의 교원양성과정에서 교육학 수업은 매우 중요하고 주목받는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교사양성의 1단계인 대학에서 교직과정 학생은 둘 이상의 전공을 복수로 이수하고 있다.
- 독일의 교사양성체계가 비용이 높고

장기간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21세기 지식기반사회 및 세계화에서 교육이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우리의 경우 대학 4년의 교원양성체계에 미흡한 점이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 4주 정도의 현장실습을 포함한 4년간의 교원양성과정을 마치고 임용고시를 합격하게 되면 교사가 될 수 있는데 독일의 교원양성체제와 비교해 볼 때 현장실습기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